

일상과 일탈의 소용돌이

김보민

예술이 거룩하고 위대해야 한다는 사명에서 벗어난 이후, 개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동시대 미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지극히 사적인 기록의 특색을 보여준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인간의 보편성을 추구하거나 불평등한 사회를 고발하는 매개체로 변모되기도 한다. 김보민에게 작품의 출발점인 일상은 안온한 권태가 느껴지는 반복적인 무엇이다. 그 안에 매몰된 사람들은 어떠한 생산적인 욕구도 느끼지 못한다. 작가는 정체된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작가 자신의 언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일탈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예술 작품이 일탈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김보민이 말하는 일탈은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범법자가 될 정도로 강도 높지는 않다. 리니지의 판타지 속으로 잠시나마 공간 이동을 감행하는 수준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심리적, 정신적 일탈자들에게 재충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고안해 냈다. 먼저 비현실적 공간과 초현실적 공간을 하나의 회화에 수용한다. 작가는 일루전이 발생하는 회화적 공간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상의 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의 집합을 초현실적인 것이라 설명한다. <몽유도원(夢遊桃源)(2005)>을 예로 들면, 작업실을 표현한 전경은 비현실의 공간, 안견의 <몽유도원도(1447)>를 패러디한 후경은 초현실의 공간인 셈이다. 김보민은 작업실인 동시에 자신이 이상향을 만들어 가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하고 관객을 인도한다.

세필로 그려진 동양화와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만든 사물이 빚어내는 낯설음도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이다. <몽유도원>에서 그림 속의 그림으로 표현된 창밖의 세계는 안평대군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도원의 형상이다. 도원이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안평대군도, 작가도 알고 있다. 하지만 김보민은 도원을 정성껏 모사한다. 작업을 하는 동안 일상에서 빗겨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보민을 답답하게 하는 일상의 실체는 라인 테이프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진다. 동양화에서 중시하는 필선을 라인 테이프를 대치함으로써 그는 전통의 무게에 짓눌리고 싶지 않은 욕구를 분명히 말한다. 그러나 김보민의 작업에는 여전히 동양화의 형식이 남아 있다. 비워진 화판은 부재를 통한 존재의 의미를 일깨우는 동시에 ‘여백의 미’라는 익숙한 어구를 환기시킨다. 가로가 긴 권(卷)의 형식도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왕제색(仁王霽色)(2005)>을 보는 관객은 라인 테이프가 만들어 내는 일률적이며 평준화된 고층건물을 가로로 시선을 움직이며 감상해야 한다.

자칫하면 김보민의 작업은 비현실과 초현실, 전통과 현대와 같은 도식화된 이분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일견 대립항으로 느껴지는 회화적 장치들은 일탈의 도모와 일상으로의 귀환이라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작가는 관객에게 잃어버린 낙원의 대응물을 제공하며 일상의 삶을 이어나갈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일찍이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야 사태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 김보민의 작품 앞에서 현실과 일탈의 반복되는 흐름 속에 의식을 맡겨 보자.